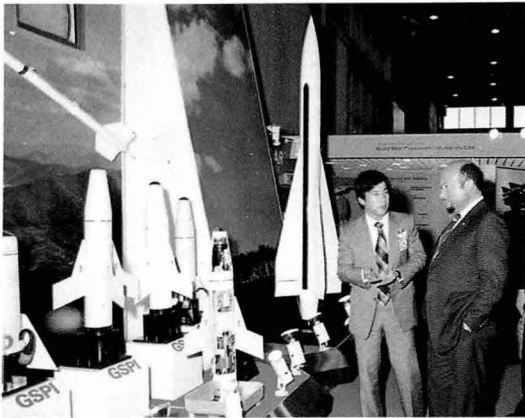


# '91 국제 군수산업전(Defence Seoul '91) 개막

— 11월 20일부터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91 국제 군수산업전(International Defence Fair Seoul '91)이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한국종합전시장 별관에서 대우중공업 등 25개 국내업체를 비롯하여 15개국 1백15개 국내외 방산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국방부가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한국종합전시장(KOEX), 한국테크노벤처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걸프전에서 선보였던 패트리엇(Patriot) 유도탄 등 각종 유도 무기와 항공기, 전자·통신 장비, 장갑차량, 함정, 해저병기 등 첨단 무기에서부터 총포·탄약에 이르는 모든 무기체계와 장비가 출품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6개국관을 중심으로 구분·전시된다.

국내외 방산업체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방위산업의 현위치를 재조명해보며,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 촉진 및 2천년대 첨단 방위산업시대 진입을 위한 기반 구축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이번 전시회를 세계 선진기술업체들과의 제휴 및 자본투자 유치로 연계하여,

국내 기술개발을 촉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사는 軍·産·學 협동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와 관련하여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東南亞국가들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시아 주요국가들의 국방관계인사들이 초청될 계획이며, 전시회 기간을 전후하여 제5차 한·미 방산회의와 한·미 연례안보회의(SCM) 등 여러 주요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전시회가 외국업체들의 첨단 무기 판매장이 될지 모른다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종합전시장의 金京南 전시1부장은 소비재 전시회가 수입축진을 유발시킨다고 하지만, 우리도 무분별한 구입형태가 지양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이와 함께 金부장은 防産의 경우 국방부의 연구·분석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어 金부장은 이번 행사에서 우리도 해외업체로부터 마케팅 감각등 여러 노하우를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싱가포르가 동남아 금융시장의 중심지로서 자리를 굳혀 가고 있는 이때, 우리의 서울을 방위산업의 부품조달을 위한 전진기지로 만들수는 없겠느냐고 반문하였다.(泰)

6개 주요 국가관 일람

구 분	전 시 업 체
한 국 관	現代精工 등 25개사
미 국 관	휴즈(Hughes) 등 23개사
영 국 관	BAe 등 32개사
프랑스관	톰슨(Thomson) 등 16개사
독 일 관	DASA 등 7개사
캐나다관	캐나다 대사관 등 4개사

이번 행사를 방위산업의 클로즈-업을 통한 수출활성화의 계기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우리 경제는 "수출만이 유일한 살 길"이며  
세계市場에서 「일방통행의 시대」는 사라졌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업도 이제는  
"껍질째 사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 洪政杓 / KOEX 사업본부장  
專務理事

이번 「'91 국제 군수산업전」의 특별한 의미나 파급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시회는 그 나라의 산업수준을 나타냅니다. 방위산업도 민수산업과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해오다가 이제는 세계적으로 兩用(dual-use)화를 보이면서, 구분이 없어져가는 추세입니다. 결국 기술 수준의 종합적이며, 복합적인 표현입니다.

이번 전시회의 경우 방위산업의 부각(close up)을 통해 수출활성화(달러를 벌어들이는)의 계기로 만들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경제는 "수출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군수산업 수출을 모색하는 중요한 轉機가 될 것입니다. 국방부의 결단과 기획에 커다란 찬사를 보내야 합니다.

향후 防産 및 관련산업을 東南亞나 제3세계등 외국市場에 팔아야 한다고 볼때, 지금부터 상품팔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술의존도가 심화된 오늘날의 현실에서 문을 닫고만 살수도 없습니다. 전시회를 통해 눈을 떠가는 開眼의 시대를 맞아야 합니다. "일방통행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10년전 국내 방산물자전시회가 이곳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해 어떠한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요?

**'81** 년의 경우 국민홍보 차원에서의 성격이 강했다면, 지금은 실질적인 결실을 거두기 위해 노력해야 할때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위해 적극 협력해준 防振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전시회가 선진국들의 첨단무기 판매경연장이 될거라고 우려하는데...

**범** 을 잡으려면 산에 가야 하듯이, 수출을 하려면 수입시장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업도 이제 "껍질째 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저의 관점에서 본다면 수입촉진이라는 말보다는 수입대책이 되어야 하며, 收支의 확대균형을 도모해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도 어느 선까지를 수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할수 있는 평가의 눈을 떴습니다. 이제는 기술적 감각과 마케팅 감각의 상호 交感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해가며, 세계市場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할 시점입니다.

(대담 : 김영태)

대우중공업



▲최신에 첨단장비-30밀리 자주대공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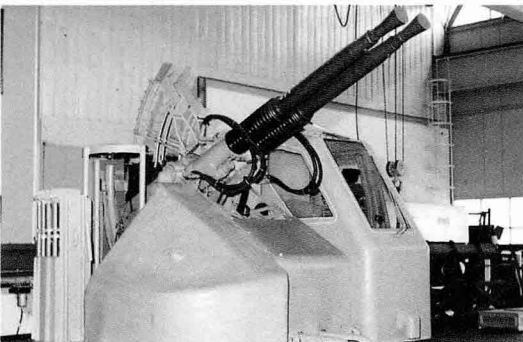
## 自走대공포 “비호” 등 5개 장비 實物 전시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큰 규모(50개 부스)로 전시될 大宇重工業은 자주대공포인 「비호」와 엔진출력을 증강시킨 K-200 장갑차, 함정용 발칸과 電動化를 통해 성

▼대간첩작전등 연안방어에 기여할 함정용 발칸



▼구동 성능을 향상시킨 40밀리 개량 함포



▲엔진출력을 증강시킨 K-200 국산 장갑차

능을 향상시킨 40밀리 개량 함포(40L/60K)를 실물(實物) 전시한다.

또한 국내 양산(量產)중인 K-200 계열 장갑차 5종을 비롯하여 화생방 정찰장갑차 등을 10분의 1 축소 모형(Mock-up)으로 함께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 대해 吳英一 이사는 『防産플랜트의 수출기반 조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수출기회를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밝히면서,

『국내시장의 한계를 탈피하고, 동남아등 제3세계 수출시장 개척을 도모하면서, 방산수출시장의 전진기지화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피력하였다.(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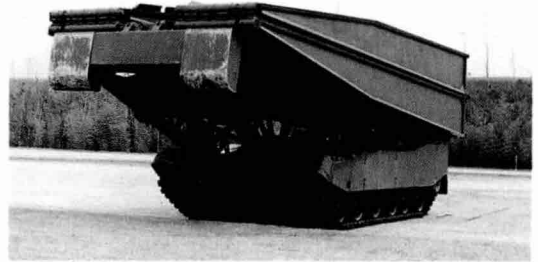
**국내** 유일한 전차 제조업체인 現代精工은 독자개발한 K-1 한국형 전차를 실물전시하며, 기술개발시험을 성공적으로 끝낸 국산 K-1 구난전차와 교량전차를 8분의 1 축소모형으로 출품한다.

특히 K-1 구난전차는 장애물 제거 기능도 갖추고 있으며, 교량전차는 우리지형에 맞도록 특수설계되어 K-1 전차의 전투력 발휘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와함께 K-1 전차의 변속기와 종감속기도 실물 전시한다.

70년대말 국가의 자주국방 정책에 동참하여, 한국형 전차의 독자개발에 착수한 현대정공은 그동안 여러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80년대말 성공리에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우리의 기술수준을 대내외에 과시한바 있다.

이번 전시에 대해 李範榮 이사는, 『세계 각국이 전차의 독자모델을 개발하여 지상전의 주력장비로 운용해온데 비해, 우리는 미국의 군원(軍援)이나 도입품을 이용하여 운용해 왔음』을 상기시키면서, 우리의 K-1 전차는 우리의 지형에 맞도록 독자개발하여 실전에 배치한 첫 장비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 지형에 맞도록 특수설계한 K-1 교량전차



▲장애물 제거 기능도 갖춘 K-1 구난전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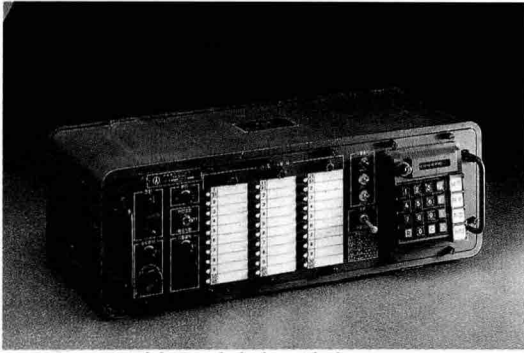
또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속에 K-1 전차를 실물전시하게 되었음을 밝히면서, 앞으로 개량(Upgrading)을 추진하면 국제시장 개척도 머지않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泰)

## K-1 전차를 비롯한 계열전차 선보여...

▼이번 전시회의 實物 전시장비중 가장 큰 K-1(一名: "88") 한국형 전차



현대정공



▲SB-30K 전술용 전자식 교환기  
다이얼 펄스와 DTMF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간선 운용은 물론 무선장비와 連動운용할수 있다



▲ECCM(對전자 방어책) 능력과 함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PRC-999K FM 무전기  
개인휴대 및 차량장착이 모두 가능하다

**金星精密** 은 최근 국내 자체기술 개발사례로서 화제가 되고 있는 GLAS-830M 저고도 탐지 및 사격통제 레이다를 비롯하여 PRC-999K 개인휴대 FM 무전기와 SB-30K 전술용 전자식 교환기등 총 19개 품목을 모두 실물(實物)전시한다.

포사격계산기를 제외한 통신전자 부문의 7개 장비와 GLAS-830M 저고도 사통레이다와 GS-948C 선박용 레이다는 실제 작동까지 선보여,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시에 대해 朴英秀 상무이사는

『지난 '81년 한국종합전시장에서 국내 최초로 열렸던 방산물자전시회 이래 10년만에 개최되는 최대규모의 방산전시회임에 비추어, 이번 전시회에서 첨단 정밀전자업체로서의 기업 이미지 제고(提高)와 GLAS-830M 등 전략상품의 전시를 통한 기술능력의 총체적 홍보를 추진해나갈 것이며, 수출기반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泰)

## 탐지 및 射統레이다 등 19개 품목 實物 전시

▼최근 국내기술개발사례로서 화제가 되고 있는 GLAS 830M 저고도 탐지 및 사통레이다

**금성정밀**



## 三星館, 삼성중공업과 삼성전자 통합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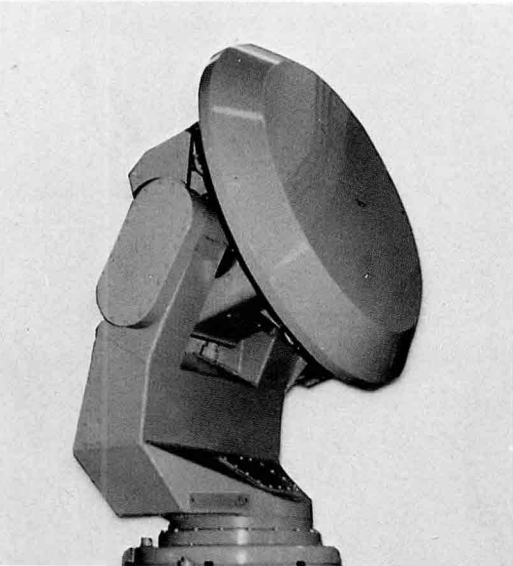


▲미국과 함께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국산 155밀리 자주곡사포



▲1대로서 5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전투 다목적굴착기

▼삼성전자의 ST 1802 추적레이다



**三星重工業**은 자유 우방 30여개국에서 주력 화포로 운용중인 155밀리 국산 자주포를 실물전시하며, 자주포용 탄약차와 포병사격지휘차 및 공병전투도자와 전투용 다목적 굴착기 등 5종을 10분의1 모형으로 선보인다.

이 다목적 굴착기는 1대로서 로더, 굴삭기, 지게차, 파괴기, 체인톱 작업등 5가지 기능이 가능하며, 전투진지 구축과 장애물 설치 및 제거등 여러 용도로 운용될수 있다.



**三星電子** (정보통신부문)는 이번 군수산업전을 통해 첨단 전자 및 통신기술의 선두주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 전시기간중 함정용 탐지/추적 레이더 시스템을 중심으로 전차 사격통제장비 및 차기 전술통신체계를 소개한다.

특히 전자식 사격통제장비(M48 전차용)와 차기 전술통신장비는 國科研과 공동개발한 국내기술장비이다.(賢)